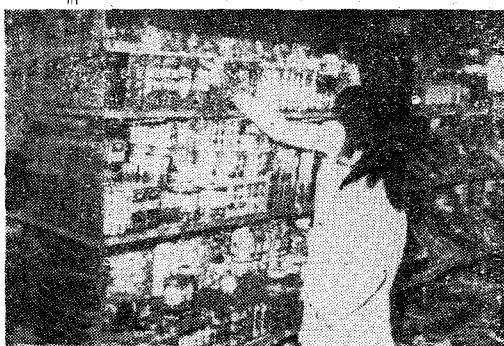


流通近代化의
체인의
後割



金天壽
(三養食品
체인
專務)



체인이란
中間마진을 배제한 一括購買場

“체인”이란 말은 수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國民에게는 자주 듣지 못하는 낯설은 말이다. 기껏해야 常識的으로 알고 있는 것이 겨울에 자동차의 미끄럼을 防止하기 위해 매달던 쇠줄, 또는 오토바이가 自轉車의 바퀴를 돌리기 위한 連結 쇠줄 程度로 英語의 Chain이라는 뜻 그대로를 使用해 왔을 뿐이다. 이 語句가近來에 와서 商去來의 流通分野에서 그 뜻이廣意的으로 使用되기始作하여 流通近代화의 方向을 提示하고 이끌어 가기為한 用語로 舉論되기始作했다.

One-Stop-Shopping(一括購買)를 할 수 있는 수퍼마켓, 즉 적어도 50坪以上의 店舗賣場에다 消費者가 必要로 하는 모든 日用食料雜貨品을 陳列하고 염가로 販賣하는 大型小賣店들이 都賣商等의 中間流通段階를 排除할目的으로 生產者로부터 商品을 共同으로 購買輸送, 保管, 管理하기 위해서 一連의 조직체를 形成한 것을 “수퍼체인”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面積이 적어도 7坪以上의 賣場을 갖고 있는 食料雜貨中小賣店들이 앞서 말한目的을 갖고 協業組織을 形成하고 그組織에 加入된 점포를 체인店 또는 連鎖店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流通分野에서의 “체인”은 수퍼마켓이나 連鎖店을 同一하게 통칭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流通近代化란
生產과 消費를 연결하는 기능

流通을近代化한다는 것은 生產과 消費를

連結하는 經濟 순환에 윤활유적 기능을 갖게 한다는 것으로 넓은 意味로는 商品의 包裝, 加工, 荷役, 販賣, 購賣, 輸送, 保管, 貯藏 等과 關聯이 있는 機構와 過程을 革新시켜 流通 코스를 節減하면서 流通効率을 提高시켜 大量 流通體制를 確立시키는 것을 뜻하나 좁은 의미로는 主要 商去來一般形態活動의近代化를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流通近代化란 國民 經濟의 發展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 무엇보다도 重要하고 切實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 차례의 經濟 開發五個年計劃을 通過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輸出產業이 急成長하고 經濟規模의 擴大와 產業構造의高度化가 實現되었지만 아직도 流通部門만은 國民經濟 分野中에서 암흑대륙으로 남아 가장 前近代的인 狀態에 놓여 있다고 본다.

流通部門의 落後性은 複雜한 流通經濟와 多段階化때문

前近代的인 落後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根本의인 理由는 其間 政府의 支援政策의 미흡에도 起因된다고 보지만 流通部門이 가지는 自體의 落後性에도 큰 原因이 있다고 보겠다.

그 構造의 落後性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첫째, 流通經路가 복잡하고 多段階化되어 있는 점이다.

즉 生產者로부터 消費者에 이르는 製品의 流通經路가 너무 많은 段階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流通段階에 있어서 特히 都賣段階의 過多한 수직적分化를 意味하며 많은 中間商이 介在함에 따라 流通마진이 크게增加하게 되어 結局은 物價上昇의 重要한 原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一部의 製品가운데 直賣店 또는 小賣店을

直接連結하는 直接流通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相當部分은 都賣商이나 其他 中間商을 通하고 있는 實情이다.

日用品 및 生必品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小商人의 比重이 매우 크며 이들은 營業 規模에 있어서나 營業 方式 및 技法에 있어서 매우 영세하고 前近代的이기 때문에 都賣段階의 多段階化가 이루어지는 要因이 되고 있다.

消費財의 경우 最終消費單位가 小規模이며 市場이 廣域化되지 않은데다가 生產者的合理的인 마아케팅 政策의 결여로 繁濫성있는 販賣經路의 管理體制가 確立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實情이다.

流通秩序가 문란하면 亂賣 등 非合理的 商去來 형성

이와같은 消費 및 生產則의 構造的特性때문에 仲介 및 分配機能을 擔當하는 中間流通機構가 增大하여 무질서하게 介入함에 따라 流通秩序가 문란하여 亂賣 Dumping(廉賣), 無資料販賣等 非合理的이고 非能率의인 商去來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都小賣機能이 未分化되어 있다는 點이다. 즉 都賣商과 小賣商의 機能이 各己專門의 機能으로分化되지 못하고 있어 都賣業者는 都散賣라고 하는 都小賣의 兩機能을 同時に遂行하고 있기 때문에 商品價格의 질서가 문란할 뿐 아니라 都賣機能의 末備로 大量物量流通의 애로를 解消못하고 있다.

流通近代化의 저해요인 都小賣業의 零細過多性

세째로는 都小賣業의 零細過多性을 들 수 있다. 過去 國民經濟 發展이 停滯狀態에 있었던 數十年동안 고용 不足으로 起因된 大量失業集

團이 糊口之策으로서 食料雜貨小賣業 等에 從事하지 않을 수 없는 與件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數많은 摘制失業者들이 갖고 있는 經營力이나 資本力은 流通近代化를 갖어오는데 크게 저해 요인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經濟的 與件속에서 1970年代初부터 政府는 國民經濟의 高度成長과 大量生產體制에 맞추어 뒤늦게나마 流通構造改善에 關心을 갖고 비교적 엄격한 指定節次와 資格要件을 갖추는 條件下에서 大型 小賣機構인 수퍼마켓의 체인화와 中小 小賣商의 協業化를 為한 業體로 認可指定하고 이를 育成하기始作하였으나 많은 業體들이 經營에 대한 專門知識의 缺如와 經驗不足, 店舖立地의 不適合, 施設과 運營資金의 不足等 原因으로 政府의 財政, 稅制面의 部分的支援에도 不拘하고 倒產내지는 廢業等 施行錯誤의 악순환만을 되풀이 하여 왔다.

체인은 複雜한 流通段階를 단순화시켜

그러다가 近來에 와서 國民이 수퍼나 연쇄점등에 갖는 關心度가 高調되고 더우기 80年代의 福祉社會建設에 따른 國民所得 增大로 消費者購買慣習의 多樣化에 對備하여 流通秩序確立을 위한 全面的인 流通機構整備가 必然的으로 要請되기始作하자 바로 “체인”은 이複雜한 流通段階를 단순화시킨 基本原動力의役割을 하게된 것이다.

체인店은 商品生產力의 急速度로 發達하여 大量生產體制가 確立되고 또 이에 相應하는 大量流通販賣體制를 必要로 하게된 狀況의 產物로서 大量集中購入에서 오는 購入Cost down, Cost Saving과 全國的으로 分散되어

있는 多數의 단위 점포를 通한 總販賣量의 極大化를 可能케 하여 賣出額과 賣出利益의 增大를 同時에 가져와 消費者에게廉價의商品을 供給할 수 있는 것이 長點이므로 체인 經營의 優越性은 特히 小賣業에 있어서 그 効用을 높일 수 있는 制度인 것이다.

즉 소매업이란 小規模의이고 分散的이고 獨立的인 것이 特性인데 이 特性을 체인化組織으로 극복하여 小賣機構의 大型화를 可能케 하고 多數의 店舖를 全國的으로 分散設置하여 強力한 中央의 計劃과 統制下에 大量集中購入, 大量輸送, 大量保管, 大量販賣, 共同宣傳等의 利點을 최대한 살려서 規模의 經濟性에서 오는 頗은 利益을 極大化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체인 經營組織의 役割인 것이다.

체인은 消費者에게 염가 상품 供給으로 경제 안정

이제 政府가 流通構造改善과近代化를 為한 새로운 關心을 갖고 이 施策의 土台가 될 “都小賣業近代化促進法案”樹立作業이 進行되고 있으므로 이立法을 通하여 流通機構近代化事業이 強力히 推進될 것이므로 체인 本然의 任務를 充實히 遂行하여 商品의円滑한 需給과 物價安定으로 國民經濟의 安定的成長에 寄與할 수 있는 時期가 닥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